

# 빈 민 굴

Na Dne

## 숭대극회 제32회 정기공연

- ◆작 : Maxim Gorky
- ◆기획 : 김상현 ◆연출 : 이용섭
- ◆일시 : 1985. 5. 9·10(목·금) PM 6시  
11(토) PM 2시·5시
- ◆장소 : 숭전대학교 대학극장

## 격려사



총장 강 신 명

학문과 연극예술 창조에 전념해 온 송대극회가 제32회 정기공연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고리끼작 “빈민굴”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일찌기 송대극회는 순수연극을 꾸준히 지향하여 왔고 연극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실재를 묘사하면서도 예술이라는 거대한 창조에 승화시켜 우리 가진 학문을 표현해 보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공연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서 젊은이의 확고한 신념과 패기로 열연할 극회원여러분에게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오랜 역사에 버금하는 참예술의 경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 모시는 글



극회장 김 상 현

송대극회는 한국 대학연극의 첫편의 장을 1921년 연흥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에서 그 맥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송대극회는 1965년 황석영작 전진호 연출이반 기획 “폐궁으로 돌아오다”를 기점으로 올해로 송대극회 창립 20주년의 해입니다.

연극은 共同의 산물이며 人間勝利의 역사라 하고 일깨워주신 선배님들의 각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이런 의미에서 맥을 찾는 우리에게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선배님들의 용지를 받들며 이번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 작품연구

### 작품에 대하여

- 빈민굴 (Na Dne)과 막심·고르끼 (Maxim Gory) -

막심·고르끼, 그는 러시아 사실주의 희곡의 대표적 작가라고 칭호하며 극의 작품의 대부분은 당시 러시아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혁명이라는 태풍과 그 앞에서 무력하게 타락해 가는 인간을 작품화했으며, 그 주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불신태도가 보다 나아질 수 있는 변혁된 현실의 가능성을 깨닫는 데 그 핵을 두고 있다」

유년기에 부모를 여의고 박해를 받았으며 좀 더 자라면서 사회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이 그의 작품의 경향을 결정짓는 동기가 되었다.

위의 원인에서부터 그의 작품이 종류 이상의 계층을 소재화하려 했던 것보다는 가난과 고통과 시기에 휩싸인 당시의 하층민을 소재로 실적·실황 (봉건제도의 종말로 인한 신분제도의 붕괴와 경제체제의 변화 그로 인한 파업 등을 원인으로 한)의 아픔을 안고 전전하며 이 절망감에서부터 나아질 수 있는 여지들을 작품의 테두리안에 보이고 있다.

위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주의적이라는 러시아 혁명당의 칭호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하층민을 대표로 부정의한 사회 제도를 개혁과 희망이라는 강한 주제의식으로 그의 작품을 저술했다. 그의 대표작 「빈민굴」(1902) 「뱀부리는 시마」(1900) 고르볼리쇼프와 타인들(1931)에서 그 면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부정한 사회제도 (환경적 불행)는 순경(사법권), 주인(경제), 여주인(도덕·윤리)의 타락상으로 표현하며, 배우(알콜중독자), 안나(폐병)의 육체적 고통은 현실적 불행이 잘 접목될 수 있을 정도로 대조되며 사회적 불행 속에서 찌친(기회주의적 이기주의자)와 끌레시치(무가치한 노동수배자)가 이 극의 현실을 비꿀 수 있으며 빼빼르라는 대표적 현실 불만 반항자가 타락한 사회의 현실에 빠져 있으면서도 새로운 희망에 대한 강한 테제를 던지는 성격으로 표현된다.

혼란한 가치관 제도의 무질서, 인간 상호간의 무관심, 질시 등이 이 작품의 도입에서 반전까지 나타나며 이는 사회악의 제거(주인의 죽음, 비실리시의 감옥행)라는 면과 강한 희망의 소유자로서 빼빼르의 감옥행이라는 면의 중간적 위치-반전-에서 개혁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향한 악한 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각 인물들의 일상생활 패턴으로 위의 요소를 바탕으로 한 성격이 일일이 제시된다 이것이 그 시대의 사회제반 구조내에서 날날이 분산되어진 성격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그 시대상황을 대변하며 각 제반 모순들을 하나씩 들춰 암담한 현실적 적태들에 대한 절망과 저주에서 순례자의 기막힌 설득으로 인해 새 생활을 동경함을 구체화시킨다.

장면 하나 하나가 위의 성격(각 계층에서 갈라져 나온 인물)들을 집약하여 이는 곧 옛 지방 분권적 봉건체제 내에서의 농노, 새로운 물결의 사회제도적 수용태세의 결핍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으로 파생된 도시의 파업 노동자의 대두 그리고 그 제도내에서 지도적 계층(남작·공작) 등이 그리고 토착민들이 펼치는 무질서·혼란·무관심의 현상으로 형상화된다.

새로운 세계에로 그러나 고민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 이 속에서의 실망, 불안, 이를 잊기 위한 역설적 행동·파격적 행동 등이 기본 물결을 이루며 이것이 웃음, 풍자의 꺼리들로 대입되고 있다.



연출의 辨



연출 : 이용섭

不滿과 非理, 不正, 暴力……,  
세상을 종식시킬 惡의 뿌리들  
있는 자들의 부식물인 찌꺼기들이  
없는 이들의 思考의 옷을 더럽게 물들이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 속에 希望의 꿈틀거림이  
우리의 靈魂을 건질 것이다.



남작 : 김석우



끄바쉬냐 : 왕동미



나스짜 : 황금실



플리시치 : 김인섭

C A S T



짜친 : 송기범



주인 : 이길영



안나 : 이민선



베베르 : 박희태



브부노프 : 안선후



나타샤 : 김은영



배우 : 이영민

Café 思量  
사랑  
(송전대 정문앞)  
814-9116

## CAST



루카 : 하승민



알로쉬카 : 최우정



순경 : 이승하



조프 : 박서림



따따루 : 안상준



바실리샤 : 류재연

Cafe

로 방

(송전대 정문)

812-2643

Cafe

길모퉁이

추억이 머무는.....

812-6100

## STAFF



무대 감독 : 엄세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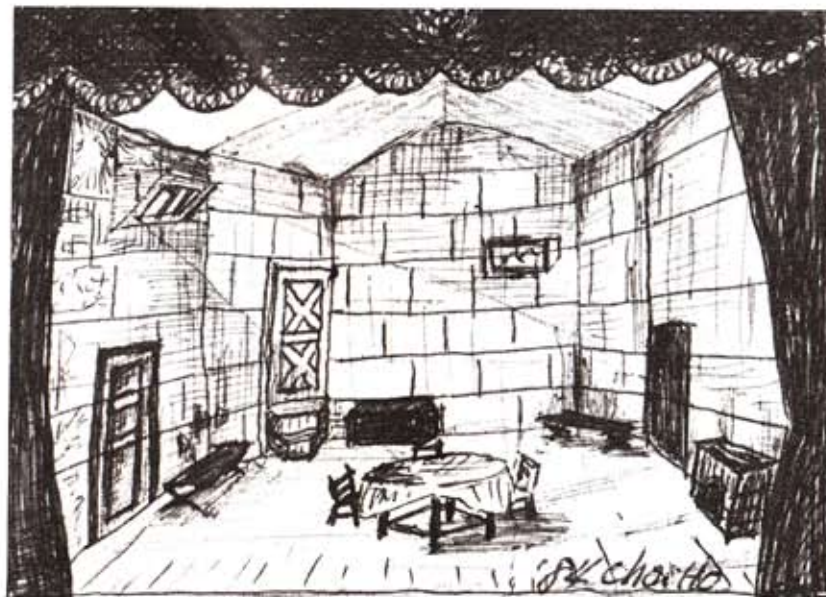
무대 미술 : 이종규



진행 : 차세훈



조명 : 허성무



이번 공연의 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 연 연 보

연	년	월	작	品	名	출
	1921년	6:13	연극회 소인극 "정세영웅 사물레방의 말로"			
	1923년	7:7, 21	전민극 "우리의 별진" "동백꽃" "십년후" "기재인간"			
	1923년	7:28, 29	연극회 "소인극" 고학성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제곱으로 돌아오다"	황석영작	이만기	전진호
2	1968년	10:28	"our Town" by Thorn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10	"외자들"	이오네스코 작		이태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15	"학자의 성문"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제
6	1970년	10:28, 29	"精良의 終末"	사뮤엘·베제트 작		김일기
7	1971년	5:26, 27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중화
8	1971년	5:28, 31	"선일복 삼파"	윤병호 작		주정서
9	1971년	6:1, 2	"당해죽어 회해서"	안문·비룡 작		한영제
10	1971년	6:1, 2	"황금단지" (로마극)	부라우터스 작		유근배
11	1971년	6:1, 2	"고도를 기다리며"	사뮤엘·베제트 작		차현재
12	1971년	11: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스 작		차현재
13	1972년	5:25, 26, 27	"생일 파티"	H. 핀터 작		한영제
14	1973년	5:21, 22, 23	"미시시피의 결혼"	F. 위렌마르 작		고봉인
15	1973년	10:25, 26, 27	"밤"	H. 핀터 작		차현재
16	1973년	10:25, 26, 27	"기도" (소극장)	F. 아라델 작		차현재
17	1974년	5: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 5막)	A. 카뮈 작		정중화
18	1975년	3:10, 11, 12	"악마와 봄"	W. Arving 작 (신입생환영)		김홍수
19	1975년	6:9, 10, 12, 13	"피울러의 산책"			안홍순
20	1975년	6:9, 10, 12, 13	"모스트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21	1975년	10:29, 30, 31	"비디안과 방화범"	Max. Frish 作		안홍순
2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택 작 (신입생환영)		김득남
23	1976년	6:1, 2, 3	"산티아고"	장·살로드·반·이탈리 작		김득남

연	년	월	작	品	名	출
16	1976년	10:25, 26, 27, 28	"밤"	장·살로드·반·이탈리 작		김영덕
17	1977년	3:16, 17, 18	"술 발"	윤대성 작 (신입생환영)		안홍순
18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피어 작		김영덕
19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피어 작		김영덕
20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作			김영덕
21	1978년	10: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피어 작		김영덕
22	1979년	3:29, 30	"갯"	이강택 작 (신입생환영)		정재호
23	1979년	6:18, 19	"한강 2979"	김영덕 작		이형국
24	1979년	9:29, 10:2	"오 꽃"	오대석 작		황정순
25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작		박양권
26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신입생 환영)		오세환
27	1981년	6: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르 작		황정순
28	1981년	11:12, 13, 14	"달맞이꽃"	김병중작		황정순
29	1982년	3:24, 25	"임금님귀는 닭나귀 귀"	김용학 작 (신입생 환영)		이용섭
30	1982년	6:12, 13	"카리갈라" A 카뮈작			지 숙
31	1982년	10:7, 8	"엑도우악스" M. 크리스토퍼작			황정순
32	1983년	4:16, 17	"블랙코메디" 피터피어작 (신입생 환영)			홍여석
33	1983년	6:20, 21	"미시시피의 결혼" F. 위렌마르 작			김영덕
34	1983년	10:7, 8	"트레버" John Bowen 作			오정일
35	1984년	3:8, 9	"제인의 소공간" N. Holand 作 (신입생 환영)			김인보
36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 作			오세환
37	1984	10:11, 12, 13	"번전쇼" John stolttenberg 作			이용섭